



경남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정책 경험 실태와 지원방안¹⁾

01.

설문조사 개요

02.

가족센터 인지 및 이용 실태

03.

가족센터 지원 사업 이용 실태

04.

요약 및 지원방안

- 다문화가족정책은 정책의 주요 대상 집단인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특성 변화에 대응하면서 이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가족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본 브리프는 최근 정부가 주목하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주요한 특성인 남성 결혼이민자·귀화자 증가, 거주 장기화를 반영한 성별, 거주기간별 두 변수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정책 경험 실태를 검토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응답자는 총 800명으로 여성 692명(86.5%), 남성 108명(13.5%)이고, 거주기간별로는 5년 미만 거주자 135명(16.9%), 5년~10년 미만 거주자 360명(45.0%), 10년~15년 미만 거주자 183명(22.9%), 15년 이상 거주자 122명(15.3%)으로 구성됨²⁾
- 최근 1년('22년 9월~'23년 9월) 가족센터의 주 이용자는 5년 이상 거주한 여성이고, 같은 기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이용이 가장 많았고, 만족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과 건강검진 지원임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거주가 장기화하면서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 다각화, 품질관리 등이 요구되는 한편, 가족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유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01.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경남지역 결혼이민자·귀화자 800명
- 표본추출방법 : 층화표본추출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웹 설문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 조사언어 :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 조사기간 : 2023년 9월 18일 ~ 10월 17일
- 조사내용 : 정책인지 및 수요, 한국생활 적응도, 가족 성평등 수준, 경제활동 참여 등

1) 본 내용은 2023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2023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 특성성별영향평가」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 재구성함

2) 성별·거주기간별 응답자 현황

(단위 : 명(%))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 15년 미만	15년 이상	총계
여성	129(16.1)	302(37.8)	155(19.4)	106(13.3)	692(86.5)
남성	6(0.8)	58(7.3)	28(3.5)	16(2.0)	108(13.5)
총계	135(16.9)	360(45.0)	183(22.9)	122(15.3)	80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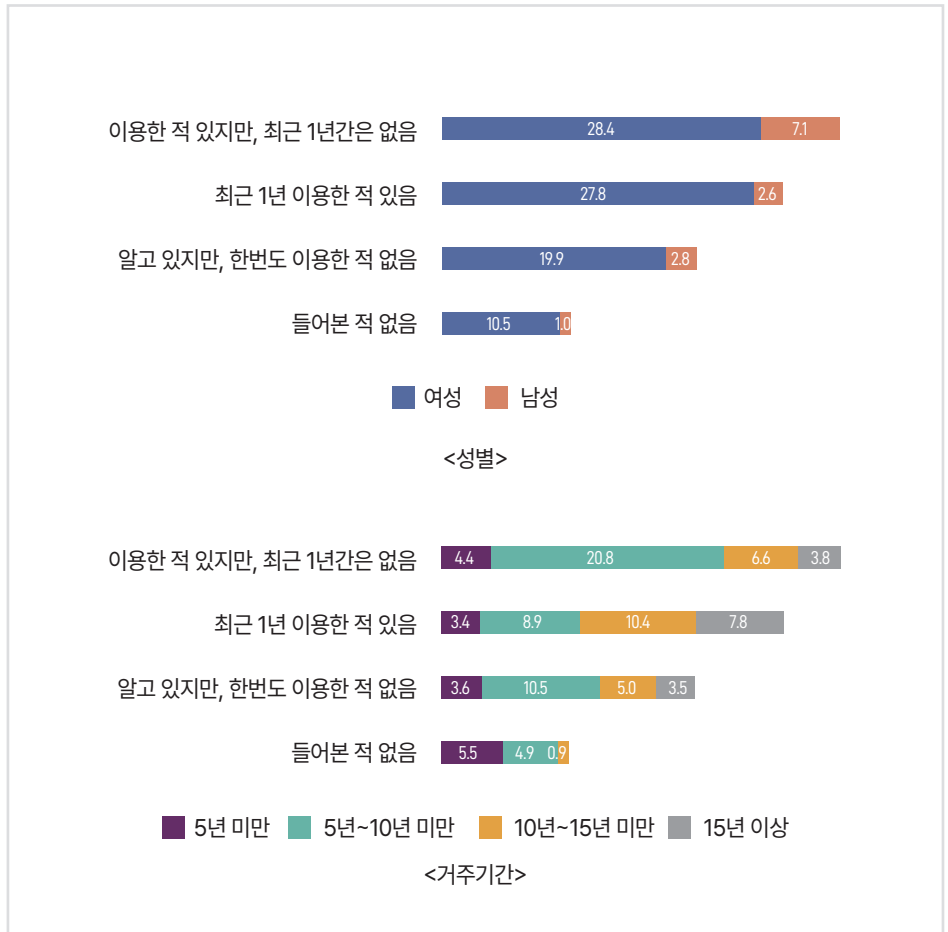
02. 가족센터 인지 및 경험 실태

1) 가족센터 인지 및 이용 경험

- 응답자의 88.5%는 가족센터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족센터를 인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35.5%는 가족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지만, 조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간('22년 9월~'23년 9월) 이용 경험이 없고, 30.4%는 최근 1년간 가족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22.6%는 가족센터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 즉, 최근 1년간('22년 9월~'23년 9월) 응답자의 30.4%가 가족센터를 이용했는데, 성별 가족센터 이용실태는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듯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남성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님
- 거주기간별 이용실태는 10년~15년 미만 거주자(10.4%), 5년~10년 미만 거주자(8.9%), 15년 이상 거주자(7.8%), 5년 미만 거주자(3.4%) 순으로, 가족센터가 초기 입국자의 적응과 정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주 이용자는 5년 이상 거주자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단위: %, n=800)

그림1 가족센터 인지 및 이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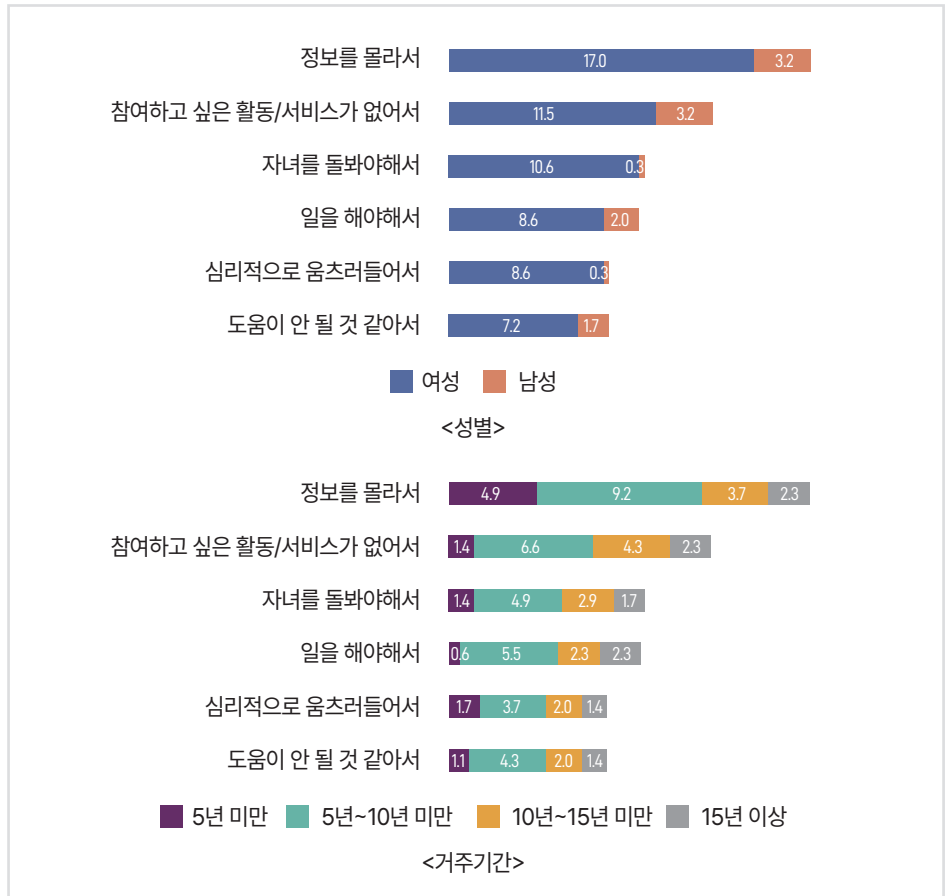


2)가족센터를 알고 있으나,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이유

- 최근 1년간('22년 9월~'23년 9월) 응답자의 69.6%는 가족센터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이용한 적은 있지만, 최근에 없는 경우가 35.5%, 가족센터의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가 22.6%, 가족센터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11.5%인 것으로 나타남
- 가족센터를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는 성별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여성이 더 다양한 이유로 가족센터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성별 유사점은 정보 모름(여성 17.0%, 남성 3.2%), 참여하고 싶은 활동·서비스 없음(여성 11.5%, 남성 3.2%), 일을 해야 함(여성 8.6%, 남성 2.0%), 도움 안 될 것 같음(여성 7.2%, 남성 1.7%) 등의 이유이고, 자녀 돌봄(여성 10.6%, 남성 0.3%), 심리적 위축(여성 8.6%, 남성 0.3%) 등은 여성의 응답에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임
- 응답의 거주기간별 구성을 보면, 정보를 모르는 경우는 5년~10년 미만 거주자 9.2%, 5년 이하 거주자 4.9%로 주로 10년 미만 거주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 외 응답은 주로 5년~10년 미만 거주자와 10년~15년 미만 거주자의 비중이 높음

(단위: %, n=348)

그림2 가족센터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



주)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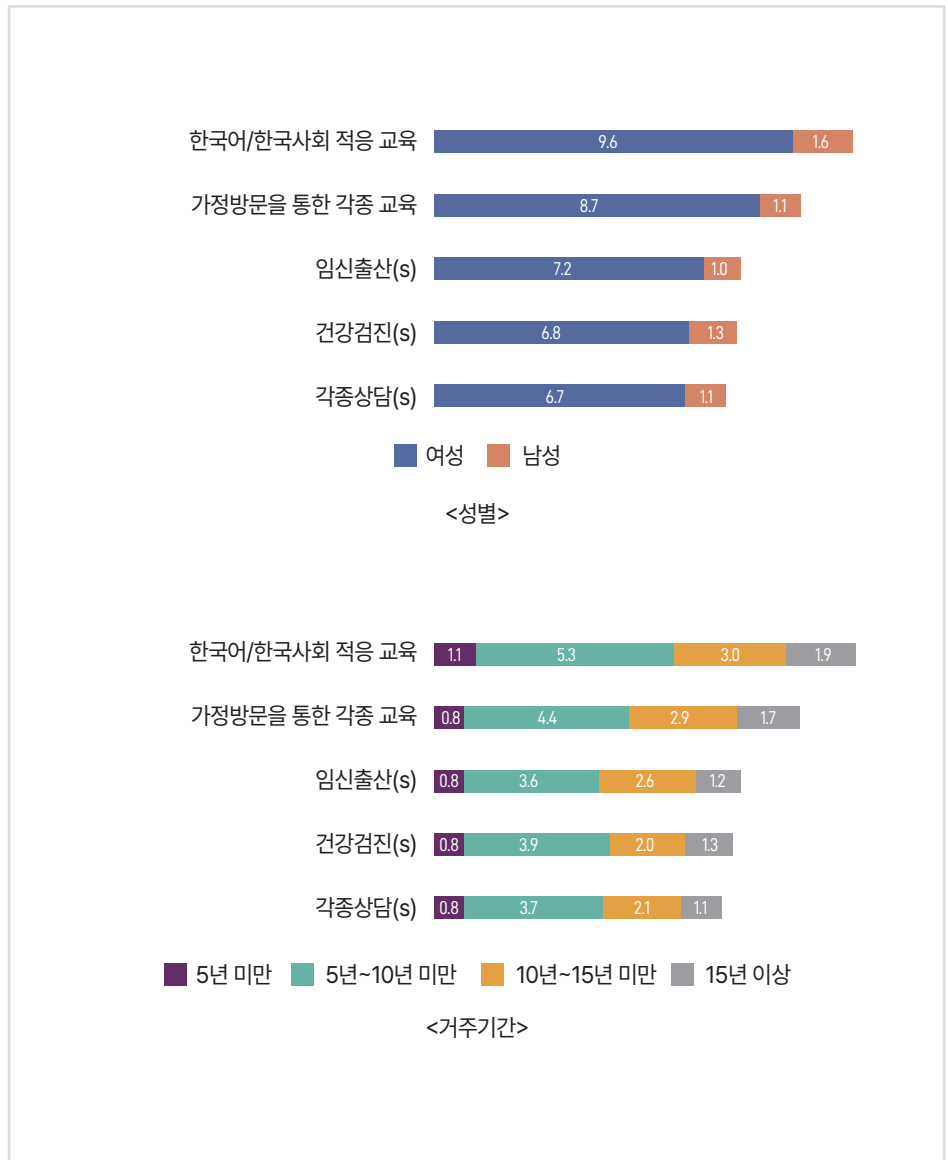
03.가족센터 지원 사업 이용 실태

1)교육 및 서비스 이용 경험

- 최근 1년간('22년 9월~'23년 9월) 결혼이민자·귀화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 프로그램은 한국어·한국 사회 적응 교육(11.2%), 가정방문 교육(9.8%), 임신·출산 지원(8.2%), 건강검진 지원(8.0%), 각종 상담(7.8%) 등의 순임
- 각 프로그램은 성별로는 여성이, 거주기간별로는 5년~10년 미만 거주자가 주 이용층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3 교육 및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n=708)



주) 가족센터의 결혼이민자·귀화자 대상 지원 사업을 교육과 서비스로 구분했고, (s)는 서비스를 의미함.

2) 교육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 이용 만족도 상위 5위 지원 사업은 자녀 언어발달지원·이중언어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및 학습 지원, 건강검진 지원,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 등으로 나타남. 건강검진 지원과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은 최근 1년간('22년 9월~'23년 9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이용이 가장 많은 동시에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
- 교육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편차가 큰 편이고, 성별 만족하는 프로그램 종류도 차이가 있음. 여성은 자녀 언어발달지원·이중언어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및 학습 지원, 건강검진 지원,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 순으로, 남성은 건강검진 지원, 임신·출산 지원, 부모교육,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 자녀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교육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음

그림4 성별 교육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주) 4점 척도, 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

- 거주기간별 지원 사업 만족도 순위는 <표 1>과 같음. 순위에 차이는 있으나, 자녀 양육 및 교육 관련 지원인 임신·출산 지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중언어교육, 한국 학교 진학 지원, 자녀생활 및 학습 지원, 부모 교육 등과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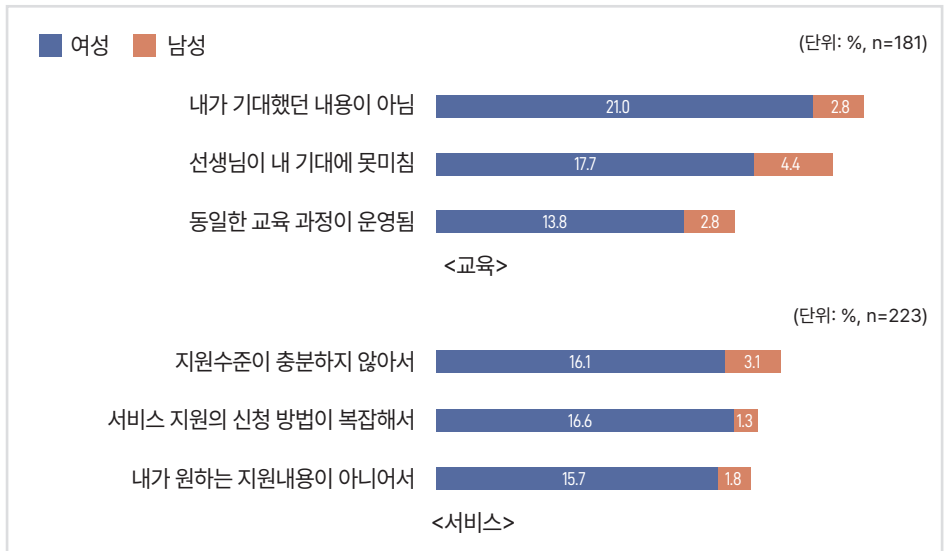
표1 거주기간별 교육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순위

순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 15년 미만	15년 이상
1위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건강검진 서비스	자녀생활 및 학습	이동다문화가족센터 서비스
2위	임신·출산 서비스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	부모 교육	건강검진 서비스
3위	부모 교육	임신·출산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	자녀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
4위	직업훈련	각종상담 서비스	한국 학교 진학	통번역 서비스
5위	통번역 서비스	부모 교육	통번역 서비스	부모 교육

3) 교육 및 서비스 불만족 이유

- 교육에 불만족인 이유는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어서(23.8%), 선생님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22.1%), 동일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16.6%) 등의 순으로, 서비스에 불만족인 이유는 지원의 수준이 충분치 않아서(19.3%), 서비스 지원의 신청 과정이 복잡해서(17.9%), 원하는 지원내용이 아니어서(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5 성별 교육 및 서비스 이용 불만족 이유



주) 1+2순위

- 거주기간별로도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내용, 선생님, 동일 교육 과정 운영 등의 이유로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목할 점은 5년 미만 거주자는 선생님보다는 교육 시간대의 불편이 불만족 이유인 것으로 응답함
- 서비스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지원내용, 지원 수준의 불충분성, 서비스 신청 방법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2 거주기간별 교육 및 서비스 이용 불만족 이유

순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 15년 미만	15년 이상
	교육			
1위	기대했던 내용 아님	선생님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함	기대했던 내용 아님	기대했던 내용 아님
2위	교육 시간대가 좋지 않음	동일 교육 과정 운영	선생님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함	선생님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함
3위	도움 되는 내용 아님	기대했던 내용 아님	동일 교육 과정 운영	도움 되는 내용 아님
서비스				
1위	지원 수준이 충분치 않음	지원 수준이 충분치 않음	지원 수준이 충분치 않음	지원 기회 제공이 충분하지 않음
2위	원하는 지원내용 아님	신청 방법이 복잡함	원하는 지원내용 아님	별로 도움이 안 됨
3위	신청 방법이 복잡함	원하는 지원내용 아님	지원 기회 제공이 충분하지 않음	신청 방법이 복잡함

4) 교육 및 서비스 지원 필요성

- 지원 필요성 상위 5위 사업은 건강검진 지원, 일자리 소개·알선, 자녀생활 및 학습, 각종 상담 지원,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 등으로 나타남. 건강검진 지원,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은 최근 1년간('22년 9월~'23년 9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이용이 가장 많은 동시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자, 결혼이민자·귀화자가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자녀생활 및 학습 지원도 만족도와 필요성 모두 높은 사업임
-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성별 인식 차이가 있음. 여성은 건강검진 지원, 일자리 소개·알선, 자녀생활 및 학습, 각종상담 지원,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 등의 순으로, 남성은 건강검진 지원, 직업훈련 교육, 임신·출산 지원,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 자녀생활 및 학습 등의 순으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단위: %, n=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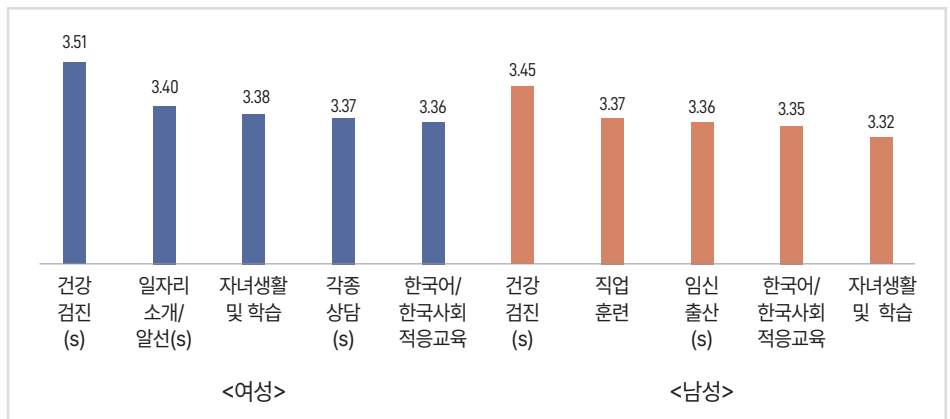


그림6 성별 교육 및 서비스 지원 필요성

주) 4점 척도, 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

-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상위 5위는 건강검진 서비스, 일자리와 관련된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알선 서비스 등으로 나타남
- 다만, 5년~10년 미만 거주자 집단에서는 일반적인 임신·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과 유사하게 일자리 관련 지원의 필요성보다 자녀와 관련한 임신·출산, 언어발달, 자녀생활 및 학습 등과 관련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10년 미만 거주자 집단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3 거주기간별 교육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순위

순위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 15년 미만	15년 이상
1위	각종 상담 서비스	건강검진 서비스	건강검진 서비스	건강검진 서비스
2위	임신·출산 서비스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	자녀생활 및 학습	일자리 소개·알선 서비스
3위	건강검진 서비스	임신·출산 서비스	일자리 소개·알선 서비스	직업훈련
4위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	자녀 언어발달지원, 이중 언어	직업훈련	각종 상담 서비스
5위	직업훈련	자녀생활 및 학습	임신·출산 서비스	자녀생활 및 학습

04. 요약 및 지원방안

- 가족센터는 주로 입국 5년 미만의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생활 적응과 정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나, 최근 1년('22년 9월~'23년 9월) 가족센터의 주 이용자는 5년 이상 거주한 여성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년('22년 9월~'23년 9월) 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귀화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 가정방문 교육, 임신·출산 지원, 건강검진 지원, 각종 상담 등이었는데, 프로그램 이용자는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 건강검진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성을 동시에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4 교육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필요성 순위

순위	이용	만족도		필요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위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	자녀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	건강검진(s)	건강검진(s)	건강검진(s)
2위	가정방문 교육	부모교육	임신·출산(s)	일자리 소개·알선(s)	직업훈련
3위	임신·출산(s)	자녀생활 및 학습	부모교육	자녀생활 및 학습	임신·출산(s)
4위	건강검진(s)	건강검진(s)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	각종 상담(s)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
5위	각종 상담(s)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	자녀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	자녀생활 및 학습

- 어떤 교육·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만족하며, 필요로 하는가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생애주기와 적응 수준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에서 자녀와 관련된 교육·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용 빈도도 높아지고, 동시에 만족도, 필요성 등의 평가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을 지나며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신규입국이 줄어든 반면, 장기 거주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결혼이민자·귀화자는 자녀와 관련된 교육·서비스,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 즉, 교육·서비스의 내용 자체를 비롯한 내용의 수준 향상 등에 대한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어 가족센터 프로그램 기획의 참신성 및 내용 충실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먼저 적정 규모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과반이 넘는 결혼이민자·귀화자가 가족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가족 센터로 유입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함. 지원이 필요하나 가족센터의 존재를 몰라서 또는 다른 이유로 가족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결혼이민자·귀화자가 사회적 지지체계와 연결되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고, 지역사회에 잘 정착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가족센터의 지원이 필요 없는 결혼이민자·귀화자도 교육·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로 가족센터라는 정책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